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4년 표어 §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막10:45)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II

(마 12:9-21)

본문에는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사람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행위를 했다고 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마 12:12).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고, 날 때부터 앓은뱅이 된 사람,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셨고, 몸이 꼬부라진 여인, 수종병에 걸린 여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모든 일들을 안식일에 행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매우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과 인식을 고쳐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주일은 더욱더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주중에 바빠 할 수 없었던 일들, 곧 병든 이들을 찾아보고, 그들을 위로하는 일을 하는 날입니다.

본문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그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어서 매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앞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 곧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어찌하든지 고쳐주시려고 하는 예수님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전혀 없고, 오히려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지 엿보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른 손을 즉시로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이 일을 빌미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규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질문과 한 가지의 목표를 따라 지켜야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은,

- 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인가?
- ② 내가 안식을 얻고 또 한 주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일인가?
- ③ 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

한 가지의 목표는 “내가 주중에 할 수 없었던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할 것인가?”입니다.

예를 들어 환우들을 찾아 심방하고 기도를 하는 일, 교회 주변에서 노방전도를 하는 일, 교회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 하는 일 등은 주일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할 때도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행여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주일을 지키는 성도님들을 보더라도 절대로 정죄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의 질문과 한 가지의 목표를 살피시면서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고, 주일이 여러분의 안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Jesus, the Lord of the Sabbath II

(Matt. 12:9-21)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Jesus who went into their synagogue on the Sabbath healed a man with a shriveled hand in this text. The Pharisees and tax collectors who had seen this scene of Jesus' healing the sick plotted to murder him.

“Therefore it is lawful to do good on the Sabbath” (Matt.12:12).

Jesus healed the man who had been invalid for 38 years at the Bethesda. He also healed a man who was unable to walk from birth, a man who lost his sight, a woman whose body was bent, a woman who caught a disease, and a man with shriveled hand. However, all of these, surprisingly, were done on the Sabbath day.

There is a very special message that Jesus is trying to tell us. Jesus wants to correct the Jewish false notion and awareness of the Sabbath day.

It is a right to do what is good. It is the day of Lord which we love our neighbor much more than general times. We must do the things that we could not do during the week because we were busy such as visiting the sick and consoling them on the Sabbath day.

In the text, a man with a shriveled hand appeared. He lived in an extremely miserable situation that he could not live a normal life. In front of him, there are two different types of people; on the one hand was Jesus who healed him, and on the other hand were the Jews who never showed sympathy. They rather try to find out whether Jesus would break the regulations on the Sabbath, and wanted Jesus to be arrested.

Jesus healed his shriveled hand right away. On the other hand, because of these, the Pharisees would rather plan to arrest and murder Jesus. It is never allowed to condemn and kill people because of religious regulations in all ages.

My beloved Christia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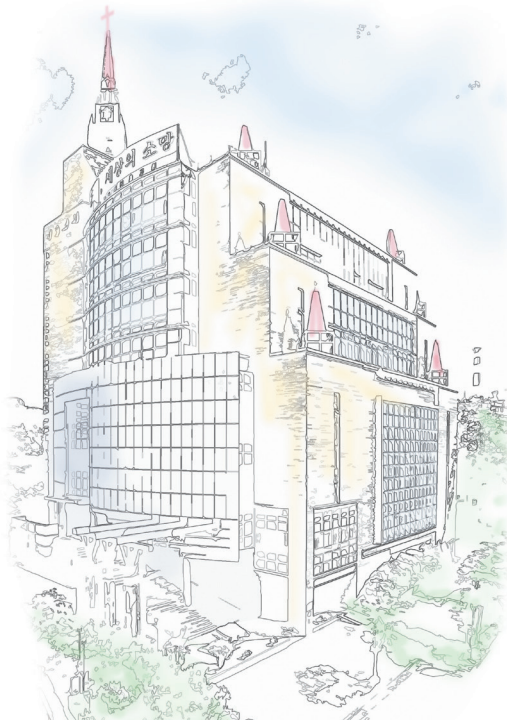
In order to keep the Sabbath day holy, we must answer three questions and one purpose in the following: three questions are,

- 1) Is it right to keep the Sabbath day holy?
- 2) Is it necessary to take a rest and prepare for the week?
- 3) Is there a circumstance beyond my control that I must do?

One purpose is, “What kind of good deed that I could not do during the week do I have to do?”

For example, there are many services such as visiting patients and praying for them. Another service is spreading the gospel on the roadside and cleaning around the church on Sunday. Moreover, when you do this, you should do with sincere mind out of love. And then, although you see Christians who keep Sunday different from you, I hope you will never condemn them but pray for them.

By looking at the above three questions and one purpose, keeping it holy, I sincerely pray that the day of Lord will be the most important day for your res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2014년 여름 단기선교팀 파송지 확정

- 방글라데시, 8월 4일(월)~13일(수)까지 10일간 -

2014 여름단기선교(지도 : 황광 목사, 단장 : 김형상 집사)가 2014년 8월 4일(월)~13일(수)까지 10일간 "방글라데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을"이란 주제로 열리게 된다.

방글라데시는 조남혜 선교사의 어린이 중심 선교 사역과 박진영, 김미성 선교사의 의료선교 사역이 현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단기선교는 주로 어린이 사역과 의료, 이미용, 지역섬김등의 사역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보다 구체적인 계획은 현

지 선교사님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 질 예정이다. 예상되는 경비는 일 인당 항공료, 숙박비, 선교활동 비용을 포함하여 160만 원 정도로 예상하며 전액 자비량이다. 이번 단기선교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3월 9일(주일)까지 사무국에 신청하면 된다. 단기선교 단원은 선교대학을 필수 수료해야 하며, 미수료자는 3월 3일(월)부터 시작되는 세계선교대학을 수료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회 가정사역, 새롭게 시작되다

- 세상을 바꾸는 엄마들 - 2. 9~3. 23 (매주일) / 오후 2:00, 504호
- 신혼가정공동체 수련회 후속모임 - 2. 23~3. 23 (매주일) / 오후3:30, 101호
- 어머니 힐링스쿨 - 3. 4~5. 13 (매주 화) / 오전 10:30, 802호
- 영,유아 어머니 하트스쿨 - 3. 6~5. 8 (매주 목) / 오전 10:30, 706호
- BBS(비블리오 바이블 놀이학교) - 3. 8~5. 10 (매주 토) / 오전 10:00, 102호
- 결혼예비학교 - 3. 16~4. 13 (매주일) / 오후 3:30, 102호

서울교회 가정사역이 알차게 준비되어 2014년 봄학기부터 새롭게 시작된다. 천세종 목사(고등부 지도)가 인도하는 고등부 엄마들과 함께 떠나는 7주간의 신약성경여행인 '세바맘(세상을 바꾸는 엄마들)'은 지난 2월 9일(주) 오후 2시, 504호에 37명의 어머니들이 모여 뜨거운 관심과 함께 출발하였다.

신혼가정공동체(지도 : 서준권 목사)는 2월23일(주)부터 5주간 한화선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성경적 결혼과 가정 & 자아상 회복'이라는 주제로 후속

모임을 가진다. 또한 결혼을 앞둔 모든 커플들과 수강을 원하는 신혼부부들과 결혼을 원하는 청년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예비학교가 3월16일(주)부터 5주간 진행된다. 모든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머니 힐링스쿨(지도 : 박영준 목사)이 3월 4일(화)에, 영,유아 어머니 하트스쿨(지도 : 구본혜 전도사)이 3월 6일(목)에, BBS(지도 양세라 전도사)가 3월8일(토)에 각각 개강하여 10주간 동안 진행된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 드린다.

2014년 2월 세례식 거행

서울교회 당회 주관으로 지난 2월 16일 주일 1,2,3부 예배 시 2014년 첫 번째 세례식이 있었다. 서울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마28:18~20)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매년 짝수달(격월) 3째주 주일 1,2,3부 예배 시에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다. 본 예식은 서울교회 3대 목표 중 하나인 "천국시민양성"의 가시적 열매임과 동시에 본인에게는 신앙성장의 기회가 되므로 교구와 다락방 및 각 교회학교에서는 세례 대상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기 바란다. 사진교

육 및 신청절차는 새가족부 세례준비반(607호)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번 세례/입교/개종/ 유아세례자는 다음과 같다.

- 세례 : 김미르, 김영희14, 김영옥1, 김종욱, 백지나, 양은지, 유병훈, 이경민5, 이소희2, 이영철1, 이혜경8, 이혜령, 이호선1, 전지혜, 전해경1, 정은선2, 정지숙1, 정지혜, 주하민, 한원준 (계 20명)
- 입교 : 김지오, 박예진1, 백소정, 이상백, 이승재, 전은재 (계 6명)
- 개종 : 허소정 (계 1명)
- 유아세례 : 조은호, 이하은, 이하연(계 3명) (총 30명)



기독교 용어 바르게 사용합시다

<예배, 예식과 관련된 용어>

9. 헌금 -> 봉헌

한국교회의 예배 순서 가운데 "헌금"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다. 이 순서는 원래 봉헌을 말하는 것이다. 기독교 예배 속에서 봉헌의 순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봉헌의 의미는 단순히 돈이나 예물을 드리는 행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봉헌은 하나님의 은총 앞에 성도들이 드리는 응답적 행위를 총칭하는 말이다. 즉 봉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정성을 다하여 경청한 무리들이 스스로 우러나는 감사의 응답으로 내어 놓는 모든 마음과 정성의 표현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순서를 "헌금"이라는 용어로, 즉 단순히 돈을 바치는 행위로 지칭하는 것은 봉헌의 의미를 아주 축소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헌금"이라는 용어보다는 "봉헌"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이 마땅하다.

(편집부 주)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20)

(문 120) 역대상 21장에 의하면 사탄의 유혹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벌하신 것입니까?

(답) 이 사건은 죄의 결과는 죄를 범한 자에게 한정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사회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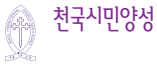
제2차 세계대전 시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수백만이 고통과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사실 다윗의 때에도 죽은 사람들은 다윗이 범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 다. 다만 다윗이 군사적 승리감에 도취되어 자력으로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삼하 24:1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라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라고 했습니다. 사실 다윗의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세력의 근거를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애굽 유브라데 수리아까지 국토를 확장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 자기들의 군사력의 결과라는 자만심이 그 배후에 깔려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노가 백성들에게 무르익게 하시려고 다윗을 통해 인구조사를 시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는 다윗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것입니다.

역대상 21:1은 사탄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총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나 요압은 이 일에 대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 하게 하시나이까'(3) 하며 항변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할 것이 없는 항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백성의 수가 많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백성도 다윗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주 계속)



변화하는 청년부!



윤중덕 집사 (청년1부 부장)

최근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나란히 위치한 충무김밥집에 한쪽은 길게 줄을 섰고 다른 한쪽은 손님이 없어 한산한 사진이었습니다. 길게 줄을 선 곳은 신세대 감각에 맞추어 인테리어와 주방이 정결한 곳이었으나, 손님이 없는 곳은 3대째 충무김밥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식당으로 지저분한 내부 주방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조적인 사진은 변화하는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면 나오게 된다는 최근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 그리고 말씀 중심의 삶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의

문화 또한 간과하면 안될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청년1부엔 많은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려왔던 전임 사역자가 두 분이나 오셨고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젊은이 예배가 생겨났으며 교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그리고 물질적인 지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신앙색깔을 가진 약100여 명이 모이는 서울교회 청년1부... 이곳에 이러한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가 생겨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끼리의 청년1부가 아니라 세상의 감각을 좇는 청년들로부터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청년들까지 다양한 신앙의 크기와 모양을 가진 많은 청년들이 동지를 틀고 교회의 핵심이 되어가는 살아 있는 그리고 변화하며 성장하는 청년1부가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임형권 집사 (청년2부 부장)

주일 오후 젊은 예배를 마치면 청년 2부 바나바 공동체의 다락방 모임이 시작됩니다. 환한 얼굴과 따스한 미소로 다락방원들을 맞이하는 다락방장들과

주간에 있었던 삶을 함께 나누고 GBS를 하는 팀원들의 모습이 사뭇 진지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서준권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청년 2부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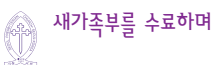
토요일마다 뜨거운 기도와 말씀으로 리더훈련을 받는 다락방장들과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임역원들 그리고 타운장으로 다락방을 섬기는 신실한

교사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청년 2부는 바야흐로 부흥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봄은 멀지 않으리’라는 어느 시인의 시가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진실로 다음세대와 함께 하는 서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청년부에 속하는 자녀분들을 꼭 보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제 새봄과 함께 웨민홀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젊은이들의 함성이 가득 울려 퍼질 것입니다.

임춘의 한 가운데에서 서서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삶의 터닝포인트



한경숙 성도 (13교구)

누구나 살아가면서 몇 번의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다녔던 교회는 객지에서의 학교생활과 직장생활로 멀어졌고, 결혼 하면서 다시 찾은 교회는 그냥 뜨거움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러 이유로 대치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습관처럼 주일에 출석 할 교회를 인터넷과 주위에 계신 몇몇 지인들을 통해서 알아보던 중 예전에 직장 상사로 모신 신용식장로님을 통해 서울교회를 알게 되었고 망설임 없이 가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처음 출석한 11월17일은 마침 VIP 새생명 초대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새신자 등록을 마치고 찾아가 602호에서는 매주 찬양이 넘치고 담당 교사이신 김태삼집사님과 조숙자권사님과 교제는 편안하고, 빠르게 적응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매주 열정적으로 한편의 성극을 보는 것 같은 박노철 담임목사님의 말씀 중심의 설교를 들으면서 느낀 점은 “서울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구나”라는 점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중심인 교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남편과 나는 일주일동안 참석하기로 결심을 했고 기도 제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한번도 나가 보지 않았던 새벽기도를 내가 그것도 스스로 나가겠다고 약속한 이유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1월6일 새벽 5시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되어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나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예배 시작 전 언제나 아무 생각 없이 외웠던 “사도신경”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음을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저는 너무나 날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동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음날 새벽 기도가 너무나 기다려졌고, 저를 새벽기도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언컨대, 나의 삶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는 서울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2014년 신년 특별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5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이 말씀 가지고 인생의 후반전을 열정적으로 멋지게 살겠습니다.



만민에게 전도 - 비전2020운동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예배



차동길 집사
(비전2020운동)

지난 2월 18일(화), 대전 국군간호사관학교 믿음교회에서 제54기로 졸업 및 임관하는 37명의 크리스천 예비간호장교들에 대한 파송예배를 우리 서울교회 후원으로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께서는 박노철 담임목사님을 통해 '여호와 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시편 121편의 말씀을 주시며, 전후방

나이다. 아울러 서울교회 장로님들과 도고팀 그리고 많은 군 가족들이 참여하여 열정이 넘치는 예배를 드림으로 참석한 모든 이들이 사랑과 은혜로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후에는 예비간호장교들과 함께 우리 서울교회에서 준비한 귀한 음식으로 교제를 나누며 복음과 사랑의 씨앗을 들고 전선으로 나서는 예비간호장교들의 앞길을 축복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서울교회 비전2020운동 본부와 도고팀은 또 다른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

하여 전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많은 서울교회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비전2020 군 선교를 위해 계속 후원과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야전병원으로 나서는 예비간호장교들에게 영적인 힘과 용기를 주시어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육·해·공군의 군종감을 비롯한 내외 귀빈들이 참석하시어 표창과 선물 및 격려의 말씀으로 예비간호장교들을 축복하였습니다



2월 성경통독자 시상

-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

서희숙 권사 (12교구)	10독
권순덕 권사 (7교구)	3독
김현주 집사 (13교구)	1독
황보추자 권사 (6교구)	1독
이남성 집사 (9교구)	1독
이영자1 권사 (11교구)	1독

등 정

■ 이중운 원로목사는 25일(화) 몽골 울란바타르대학교 명예총장으로 추대된다. 24일(월)출국하여 26일(수)귀국한다. 28일(금) 서울기독교대학 입학식 예배설교를 한다. 3월1일(토) 사랑의 쌀운동 조찬기도회와 울란바타르대학교 이사회에서 각각 설교한다.

■ 독남: 9교구 김익로 성도 정효진 성도(김찬웅 집사 황재연 권사 차남 가정)

■ 주간식당봉사 : 안드레산교회 루디아전도회(223) 베드로산교회 뱌뵈전도회(32)

■ 금주의 식사 : 교회제공

어머니 힐링스쿨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가는 어머니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인 '어머니 힐링 스쿨'을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없이 약한 존재인 여자도 자녀에게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어머니는 한 생명을 잉태하고 키우며 희생합니다.

그러나 자녀와 또 다른 커뮤니케이션의 코드를 맞춰야 하지만 엄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힐링 스쿨은 자신의 내면의 성장과 대인관계, 더불어 자녀와 부부간의 치유와 회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가정의 기초로 세우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꽃을 피우길 원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개 강 : 2014년 3월 4일(화) 매주 화요일, 10주간
2. 일 정 : 2014년 3월 4일(화)~5월 13일(화), (오전 10:30~오후 12:30)
3. 장 소 : 서울교회 802호
4. 대 상 : 어머니 누구나
5. 모집인원 : 30~40명
6. 강 사 : 박영준 목사, 양세라 전도사, 구분혜 전도사, 이은옥 권사(학부모연대 공동대표 역임), 유경하 사모(맘투맘 대표).
7. 수강료 : 25,000원 (재료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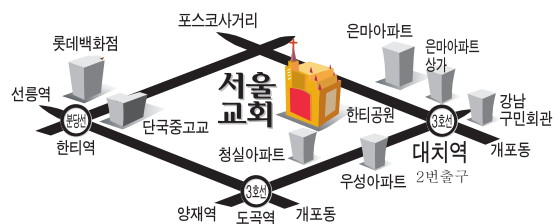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가정사역들 가운데 치유와 변화,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2. 2/28일과 29일에 있는 청년 2부 겨울수련회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여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3.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일에 쓰임 받으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배	오후 1시 30분
	I 부 예 배	오전 11시
새 벽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